

## 제 12 장: 인간 너머의 지리학

TRAN TUNG NGOC (진송옥)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지리학전공 박사과정 3 기

동물지리학 .....	3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ANT) .....	5
혼종적 지리학 .....	6
결론.....	7
한국에서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 .....	8

오늘날 대부분의 지리학과에서는 인간지리와 자연지리가 분리된 두 분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에 대한 연구라는 공통된 역사적 기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실천에서는 출판 방식·이론·학회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고대 지리학자부터 19 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지리학의 역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그다지 경직되어 있지 않았다.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sup>1</sup> 이나 데이비스(William Morris Davis)<sup>2</sup> 와 같은 지리학자들은 분석 속에서 이 두 분야를 긴밀히 연결시켰다. 이후 이푸 투안(Yi-Fu

---

<sup>1</sup> 피터 크로포트킨 (Peter Kropotkin, 1842–1921): 러시아 출신의 지리학자이자 아나키즘 사상가로 자연에서의 경쟁보다는 상호부조(Mutual Aid)를 진화의 핵심 요소로 보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대표 저작: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1902)

<sup>2</sup>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 (William Morris Davis, 1850–1934): 미국의 지형학자이며, 침식 순환 이론(cycle of erosion) 을 통해 현대 자연지리학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형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대표 저작: 『Geographical Essays』 (1911)

Tuan)<sup>3</sup> 이나 로버트 색(Robert Sack)<sup>4</sup> 같은 학자들도 지리를 인간, 사회,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소’를 이 세 요소가 결합된 결정체로 보았다.

밀턴 산토스(Milton Santos)<sup>5</sup>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들 또한 인간의 노동을 통한 자연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였다. 윌리엄 크로넨(William Cronon)<sup>6</sup>이나 매튜 갠디(Matthew Gandy)<sup>7</sup>와 같은 환경 및 도시지리학 연구들은 자연이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지리학자들은 자연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환경결정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 특히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의 관점이 새로운 접근으로 부상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사물,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재고하며, 인간 너머의 행위 주체 가능성을 확장한다.

브라운(Braun)<sup>8</sup>, 캐스트리(Castree)<sup>9</sup> 와 내쉬(Nash)<sup>10</sup> 와 같은 포스트휴머니즘 학자들은 인간/비인간의 구분이 자연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의 차별(성별, 인종

---

<sup>3</sup> 이푸 투안 (Yi-Fu Tuan, 1930–2022):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로 현상학적 인간지리학의 개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간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대표 저작: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1977)

<sup>4</sup> 로버트 색 (Robert Sack, 1942~ ): 미국의 인간지리학자로 공간을 도덕적·문화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이해하고, 장소성과 현대성, 소비사회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표 저작: 『Place, Modernity, and the Consumer's World』 (1992)

<sup>5</sup> 밀턴 산토스 (Milton Santos, 1926–2001): 브라질의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로 특히 노동과 사회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에 주목하며, 제 3 세계 관점에서 지리학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대표 저작: 『A Natureza do Espaço (공간의 본질)』 (1996)

<sup>6</sup> 윌리엄 크로넨 (William Cronon, 1954~ ): 미국의 환경사학자로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해체하고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연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선도하였다. ■ 대표 저작: 『Nature's Metropolis: Chicago and the Great West』 (1991)

<sup>7</sup> 매튜 갠디 (Matthew Gandy, 1965~ ): 영국의 도시지리학자로 도시 자연과 인프라, 기술, 정치의 교차성을 분석하며 비인간 행위자와 도시 공간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대표 저작: 『Concrete and Clay: Reworking Nature in New York City』 (2002)

<sup>8</sup> 브루스 브라운 (Bruce Braun): 캐나다 출신의 지리학자로 포스트휴머니즘 지리학과 정치생태학 분야의 주요 이론가이며, 신체성과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주목받았다. 대표 논문: “Nature and Culture: On the Career of a False Problem” (2004)

<sup>9</sup> 노엘 캐스트리 (Noel Castree): 영국의 지리학자로 정치생태학 및 자연의 사회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자본주의와 환경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대표 저작: 『Nature』 (2005)

<sup>10</sup> 캐서린 내시 (Catherine Nash): 아일랜드의 문화지리학자이자 페미니즘 지리학자로 젠더, 정체성, 신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대표 논문: Castree & Nash, “Posthuman Geographies” (Social & Cultural Geography, 2006)

등)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몸을 관계적이며, 투과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그 속에서 인간적·생물학적·기술적·물질적 요소는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등장하였다. 이는 인간 중심성을 탈피하고 인간지리와 자연지리의 재연결을 시도하며, 비인간 행위자들의 공동 창조적 역할을 인정하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 장에서는 저자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세 가지 구체적 접근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동물지리학,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그리고 혼종적 지리학(hybrid geographies)이다.

### 동물지리학

동물지리학은 1990년대부터 부상한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자연지리학과 인간지리학 사이에 위치하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생물지리가 동물을 주로 생태학적 대상으로 바라본 데 반해 동물지리학은 동물을 공간 속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행위 주체로 조명한다.

동물은 인간에 의해 이중적인 시선으로 인식된다. 애완동물처럼 가깝고 사랑스러우며 길들여진 존재로 간주되는 동시에, 실험 도구나 대규모 육류 생산의 수단으로 대상화되기도 한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sup>11</sup>와 지리학자 브라운(Bruce Braun), 앤더슨(Ben Anderson)<sup>12</sup>, 필로(Chris Philo)<sup>13</sup> 등은 이러한 인간/동물 구분과 그에 따르는 윤리적 위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초기 연구는 동물이 어떻게 상징화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연구들은 동물의 행위성(agency)과 이들이 사회와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

<sup>11</sup>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1930–2004):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로 해체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서구 철학의 인간 중심주의(humanism)를 비판하고 동물과의 윤리적 경계를 문제 삼았다. 대표 저작: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2008)

<sup>12</sup> 벤 앤더슨 (Ben Anderson): 영국의 인간지리학자로 정동(affect), 감정, 생명정치와 같은 주제를 통해 비재현적 지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표 저작: 『Encountering Affect: Capacities, Apparatuses, Conditions』 (2014)

<sup>13</sup> 크리스 필로 (Chris Philo): 영국의 지리학자로 문화지리·건강지리·동물지리학 분야에서 활약하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공간적 경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해왔다. 대표 논문: “Animals, Geography, and the City: Notes on the Spaces of Human–Animal Encounter” (1995)

예를 들어 필로(Philo)는 19 세기 도시에서 가축을 제거하는 과정이 근대화의 일환으로 ‘순수한 인간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도시란 결코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반려동물부터 여우, 사슴, 주머니쥐에 이르기까지 동물은 언제나 도시에 존재해왔다. 에마 파워(Emma Power)<sup>14</sup>의 연구는 주머니쥐가 인간에게 불편함을 주는 동시에 ‘집 같은 느낌(hominess)’을 증폭시키는 존재임을 보여주며, 인간의 거주 공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투과적인지를 드러낸다.

제니퍼 월치(Jennifer Wolch)<sup>15</sup>는 이러한 접근을 확장하여 “주폴리스(zoopolis)” – 동물들의 도시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도시 공간에서 동물을 윤리적·정치적 주체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만약 도시 설계가 동물의 존재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의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물지리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크리티카 스리니바산(Krithika Srinivasan)<sup>16</sup>의 인도 첸나이에서의 들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들개들은 완전히 야생도 완전히 길들여진 것도 아닌 존재로 인간과 밀접히 상호작용하며 ‘자발적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출산 통제법에 의해 보호되면서도 폭력과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스리니바산은 이처럼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이론적으로는 자연/문화의 이원론을 넘어서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인간/동물, 자연/비자연과 같은 윤리적 이분법이 인간의 판단과 대응 방식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물지리학은 단지 ‘공유된 공간’의 확장 개념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 간 윤리적 관계의 기반 자체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

<sup>14</sup> 에마 파워 (Emma Power): 호주의 지리학자로 도시공간 내 인간과 동물의 관계, 특히 반려동물과의 공동 거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동물지리학에 기여하였다. 대표 논문: “Furry families: Making a home for the other” (2008)

<sup>15</sup> 제니퍼 월치 (Jennifer Wolch): 미국의 도시지리학자이며, ‘주폴리스(zoopolis)’ – 동물들의 도시 개념을 제안하며 도시계획에서 동물을 윤리적·정치적 주체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 저작: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1998, Jody Emel 과 공동 편집)

<sup>16</sup> 크리티카 스리니바산 (Krithika Srinivasan): 인도의 정치생태학 및 동물지리학 연구자로 인도와 영국의 들개 관리 정책을 통해 동물 복지와 인간-동물 간 윤리적 관계를 고찰하였다. 대표 논문: “The biopolitics of animal being and welfare: dog control and care in the UK and India” (2013)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ANT)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 은 사회학과 지리학의 오랜 이분법들(예: 구조/행위, 문화/자연, 실재/사회적 구성)에 대한 비판적 반응으로 등장하였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sup>17</sup> 가 주창한 이 이론은 행위성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능력이 아님을 주장하며, 모든 행위는 인간 · 사물 · 생물 · 기술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엮힌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본다. 즉, 행위성은 단일 주체가 아닌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co-constructed) 된다는 것이다. 라투르는 망치 · 문고리 · 책 · 가격표 등 사물 자체도 실질적인 행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물이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여부가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을 제거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사물도 행위성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ANT는 사회를 분석할 때 ‘사회’나 ‘구조’라는 추상적 개념에서 출발하지 말고 구체적인 연결망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는 또한 분석의 대칭성을 제안한다. 인간을 물질보다 우위에 두지 않고, 실험실에서의 과학 활동부터 철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엮힌 네트워크의 산물로 본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도 분리되지 않고 중첩되어 있다. 조너선 머독(Jonathan Murdoch)<sup>18</sup> 에 따르면 문서 · 기술 · 규범 등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을 공간을 가로질러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로컬한 지점을 연결하고 ‘글로벌함’을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ANT는 존재론적 실재론의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박테리아, 암석, 책과 같은 비인간 실체의 독립적 존재와 작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ANT는 구성주의적 성격도 지닌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체들이 네트워크에 편입되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는 위계적이고 하향식(top-down)인 설명을 거부하며, 모든 사회 현상은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연결망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그 연결을 더 넓은 차원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ANT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행위성 개념의 확장에 대해 논란이 있다. 사물에 행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

<sup>17</sup> 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 1947–2022):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창시자이며, 과학과 사회,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사상가이다. 대표 저작: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2005)

<sup>18</sup> 조너선 머독 (Jonathan Murdoch): 영국의 지리학자로 정치생태학과 관계적 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인간지리학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대표 저작: 『Post-structuralist Geography: A Guide to Relational Space』 (2006, John Paul Jones III 와 공저)

의식 있는 주체와 무생물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인해 “행위성에도 구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T는 인간·물질·세계 간의 관계를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 혼종적 지리학

혼종적 지리학은 자연/문화, 사회/환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한 관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등장한 지리학 이론이다. 세라 왓모어(Sarah Whatmore)<sup>19</sup>와 같은 지리학자들은 현실 세계는 분리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 물질, 기술, 생명체, 지식, 규범이 얽힌 복합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흔히 “자연” 또는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물질-사회적 관계망의 결과물이다.

이 이론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행위성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안의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순수한 ‘자연’도, 전적으로 ‘사회적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나무, 법률, 관광객, 안내서, 예술가, 정책, 그리고 문화적 상상력이 얽힌 복합적 연결체다. 대표적인 예로는 온코마우스(Oncomouse)가 있다. 이는 암 연구에 사용되는 유전자 조작 생쥐로 그것을 단순히 “자연”이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온코마우스는 과학·기술·자본·생물학이 얽힌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비슷하게 왓모어가 연구한 콩도 역시 전통적 품종 개량·유전자 변형 기술·종자소유권 법 그리고 GMO에 대한 대중의 반응 등 자연과 문화가 교차하는 하이브리드 존재로 나타난다.

왓모어는 대두가 농민, 몬산토(Monsanto) 기업, 질소 고정 박테리아, 특허법, 소비자 등을 포함하는 혼종적 행위자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문화-자연의 사례다. 또한, 대두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식량 생산 체계 속의 권력과 지식 관계를 드러낸다. 왓모어는 “자연은 어디에서 끝나고, 문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

<sup>19</sup> 세라 왓모어(Sarah Whatmore)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리학 교수로 혼종적 지리학을 통해 자연/문화,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을 비판하며, ANT와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을 지리학에 도입한 선구자이다. 대표 저작: 『Hybrid Geographies: Natures, Cultures, Spaces』 (2002)

인간과 비인간 요소들 간의 관계를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혼성적 존재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홍수 관리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다. 예컨대 과학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지식을 생산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은 인간 · 측정 장비 · 물 흐름 · 정책이 얽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또 다른 사례다.

## 결론

이 장에서는 인간지리와 자연지리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현대 지리학의 다양한 시도를 고찰하였다. 동물지리학,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그리고 혼종적 지리와 같은 이론적 틀을 통해 지리학자들은 자연/문화의 이원법적 관점을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연결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sup>20</sup>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들은 특히 환경 위기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지리학적 사유를 재구성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다. 최근에는 인간지리학자와 자연지리학자 간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화 과정에서 생겨난 분절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학문적 실천에서는 인간지리와 자연지리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이른바 ‘탈인간 중심’ 접근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주체성 같은 특성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우위에 놓이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수렴은 자연과 문화를 분리하지 않았던 19 세기 훔볼트(Humboldt)나 리터(Ritter) 같은 지리학자들의 종합적 사유를 떠올리게 한다. 비록 현재 ANT 이론을 실천하는 연구자 다수가 여전히 인간지리 분야에 속해 있지만 자연지리와의 연계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학문 내 통합에 대한 고무적인 전망을 열어 주며 앞으로의 학술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sup>20</sup> 현실 속 모든 실체를 동등하게 실재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특정 유형의 실체를 다른 유형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위계적 또는 이분법적 분류를 거부한다. 평면 존재론은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성과 관계적 본질을 강조하며, 현실을 계층화된 체계가 아닌 복잡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간주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이원론과 위계에 도전하며 어떤 실체도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한국에서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

최명애 (2018).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공간과 사회』, 63, 16-54.

이 논문은 한국 인문지리학의 연구 지평을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동물 관계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 과정과 이론적 접근 그리고 쟁점들을 소개하고 국내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한 글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며 동물에 대한 대중적·정책적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인문지리학에서는 여전히 동물이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 영미권 지리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동물지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비인간 동물의 행위성과 인간-동물 간 감응적 상호작용을 조명하며 진화해왔다. 이 같은 흐름은 인간 중심의 기존 지리학의 한계를 넘어, 동물을 공동 세계의 주체로 재사유하려는 이론적·윤리적 시도로 나타난다.

논문은 영미 동물지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세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한다. 첫째, ‘사회적 생산/구성주의적 접근’은 동물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규정되는지를 분석하며, 동물원, 다큐멘터리, 축산업 등을 통해 인간 사회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둘째, ‘관계적 접근’은 인간과 동물의 구체적인 신체적·정서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동물을 독립적인 행위자이자 공동 세계의 구성 파트너로 이해한다. 이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포스트휴머니즘, 비인간 행위성 이론 등을 바탕으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주폴리스(zoopolis)’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셋째, ‘생명정치적 접근’은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확장해, 동물이 다양한 통치 장치와 정책의 대상이자 결과로 규정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는 인간-동물 관계에 내재한 정치적·윤리적 작동 논리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틀로 작용한다.

더불어 논문은 동물지리학의 네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방법론’으로 언어 외적인 감응(affect)을 통한 동물 행위성의 이해, 트랜스-스피시스 연구, 영상 분석 등 비재현적 방법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는 ‘동물 윤리’로 보편적 규범에 의한 윤리보다 구체적·개별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관계적 윤리’를 주장하며, 해러웨이의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 개념을 통해 실천적 전환을 제안한다. 셋째는 ‘생명 자본으로서의 동물’로 동물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통치되고 소비되며,

또 어떤 윤리적 전환의 가능성을 품는지를 탐색한다. 넷째는 ‘동물의 지리’로 동물이 인간 중심 공간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공간 구성에 참여하는 주체임을 밝히고자 한다.

끝으로 저자는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적 맥락, 즉 압축 근대화·식민지 경험·도시화·국가 주도의 개발 모델 등이 인간-동물 관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해왔으며, 이는 영미 중심 동물지리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의 사례는 동물지리학의 지리적 범위를 아시아로 확장하며, 이론적 풍부함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 권 1 호, 57-78.

오늘날 인문지리학에서 사회현상과 공간을 이해함에 있어 ‘관계성’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더 이상 공간은 고정된 단위나 속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역·장소·영역 등도 행위자들 간의 유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인 공간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며 공간을 단순히 사회현상이 담기는 그릇이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장소로 보는 관점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인문지리학에 유효한 이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ANT 는 공간을 사전적으로 주어진 구조가 아닌, 행위자들의 실천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적 네트워크로 파악한다. 특히 ANT 의 핵심 개념인 ‘번역(translation)’은 특정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권력, 공간, 정체성과 같은 기존의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개념들을 해체한다.

도시지리와 경제지리 분야에서도 ANT 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시지리에서 기존의 도시 네트워크 개념이 점과 선의 연결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ANT 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행위자들의 실천 없이 선형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세계도시를 분석할 때 ANT 는 도시 간의 관계성과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자본·정보·권력의 흐름 속에서 도시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데 유리하다. 경제지리에서는 지역 기반의 신뢰와 착근성을 분석할 때 ANT 는 이를 고정된 지역 특성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본다. 신뢰는 이질적인 행위자들 간의 안정된 네트워크 동맹으로 착근성은 권력이 한 주체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효과로 이해된다.

궁극적으로 ANT는 단순한 공간 분석 이론을 넘어서 학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ANT는 학문과 학계의 성역화에 반대하며 지식과 학자 공동체를 이질적인 네트워크의 효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학문을 보다 개방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포섭된 현대 학계의 도구주의적·실용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ANT의 이론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자료를 중심으로 한 정밀한 담론 분석이나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제도적 민족지 방법론 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최명애와 박경환의 두 연구는 한국 인문지리학이 전통적인 인간 중심 모델을 넘어서기 위한 이론적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작업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증 연구의 부재, 현장 중심의 연구 방법론 부족, 그리고 이론의 지역화(localization) 문제는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빠른 사회·생태적 변화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특히 서구 이론과 아시아적 맥락의 통합을 통해 풍부한 담론 형성이 기대된다. 예컨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 팬데믹 이후 생태적 반성, 도시 환경 위기 등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현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열린 장’이 되어주고 있다. 멀티스피시스 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sup>21</sup>, 비주얼 메서드(visual methods)<sup>22</sup>, 오토에스노그래피(autoethnography)<sup>23</sup>와 같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은 기존 이론 중심

<sup>21</sup> 멀티스피시스 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는 인간 외의 존재들, 예를 들어 동물, 식물, 미생물 등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민족지적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민족지의 틀을 넘어서,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성과 감응을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상호작용이나, 도시 생태계 속 야생동물의 공간 점유 방식 등을 탐구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공동의 세계를 구성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다.

<sup>22</sup> 비주얼 메서드(visual methods)는 사진, 영상, 지도, 그림 등 시각적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감각, 분위기 등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며, 특히 감응(affect) 연구나 비재현적 접근에 적합하다. 연구자는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연구 참여자들이 시각 자료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시각 자료(광고, 다큐멘터리, SNS 이미지 등)를 분석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의 산책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인간-동물 간 리듬과 감정을 분석하는 사례가 있다.

<sup>23</sup> 오토에스노그래피(autoethnography)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감정, 기억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의미를 성찰하는 자기 서사적 연구 방법이다.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일상과 내면을 통해 문화적 맥락을 탐색하며, 객관정보보다는 정서적 진실성과 공감에 중점을 둔다. 종종 일기 형식이나 서사체, 시적 표현 등으로 구성되며, 연구자의 윤리적 갈등이나 돌봄 경험을 솔직하게 서술하는 데 적합하다. 예컨대, 반려견과의 이별을 겪은 연구자가 그 과정을 통해 돌봄과 상실의 윤리를 성찰하는 글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동물지리학 분야에서는 동물 복지 정책 분석,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설계(반려동물 공원, 반려동물 친화적 주거 공간, 무인 이동수단과 동물의 공존 등)를 ‘동물정치적 인프라(zoopolitical infrastructures)’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론:**

1. 왜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동물지리가 아직 본격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잡지 못했을까요?
2. 지리학에서 자연과 문화의 혼종성이 ‘자연 공간’에 대한 우리의 정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립공원, GMO 농업 시스템, 또는 온실 농업 시스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지리학에서 인간 너머의 감응성, 다중성, 물질성 등을 강조하는 것이 공간 과학으로서의 검증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는 없을까요?